

# 미국 국경 정책의 두 얼굴 - 남쪽은 '국경 장벽', 북쪽은 '노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국경장벽 건설을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허풍 처럼 들리던 공약은 실제로 추진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더해 멕시코로부터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병력을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애리조나주가 가장 먼저 미국-멕시코 국경에 주 방위군 338명으로 파병했고 텍사스주도 1,000명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뉴멕시코주도 주방위군을 파병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지난달 18일 성명을 통해 400명의 주방위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까지 병력 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4,000명의 주방위군을 멕시코 국경에 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이 모든 국경에 이처럼 강력한 국경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와의 국경은 오히려 느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국경 정책과 관련해 '주간경향' (1276호, 2018. 05.14)은 '내로남불' 식 정책이라며 인접국에게 각기 다른 애환을 안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국경도 달라졌다. 장벽 건설이 추진되고 군대가 배치된다. 그러나 어느 쪽에 있는 국경이냐에 따라 변화의 성격은 사뭇 달라진다.

## ■ 방문비자로 미국 거쳐 캐나다로 몰려

캐나다는 최근 미국에 방문비자 발급절차를 엄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에 들어온 나이지리아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캐나다로 불법 월경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4월 중순까지 캐나다 퀘벡주에 들어온 불법입국자는 6,000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 2016년 같은 기간에 비해 6배에 달하는 수치다.

캐나다는 난민들에게 인기있는 도피처였다. 불법입국자에게도 난민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심사기간 적절한 보호조치도 제공한다. 때문에 이슬람권이나 제3국 출신 난민들이 지속적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요즘처럼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었다. 불법입국 자체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불법이민자 상당수를 흡수해 왔다. 때문에 비자 발급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만으로



▲ 미국과 접한 캐나다 국경 소도시인 매니토바주에서 캐나다로의 난민 신청을 위해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여성을 캐나다 경찰이 지켜보고 있다.

도 불법입국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은 더 이상 불법이민자를 흡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불똥은 캐나다로 튀었다. 난민들이 미국 입국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을 거쳐 캐나다로 향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캐나다 간 이민협약의 허점도 작용했다. 양국은 최초 도착국에서 난민심사를 하도록 하는 제3국 협약을 2002년 체결했다. 이 때문에 미국을 거쳐 캐나다로 온 난민들은 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지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합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경우에 한한다. 불법 월경자의 경우 관련 규정이 따로 없어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 난민들은 이 허점을 노린다.

특히 이는 미국 내의 이민자들까지 캐나다로 몰려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편법을 가장 먼저 활용한 이들도 미국 내 아이티 이민자들이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의 TPS 갱신을 중단하자 3국 협약의 허점을 노리고 캐나다 퀘벡주나 온타리오주로 대거 불법 월경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 협약을 개정하거나 폐기할 생각이 없다. 방문비자 발급을 엄격히 해달라는 캐나다의 요청에 대해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남쪽 국경에서의 미국의 태도는 북쪽에서와는 사뭇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캐러밴이 오고 있다"며 "이들에게 우리 국경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 방위군을 국경에 배치하는

포고령을 내렸다.

'캐러밴'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 중미 출신 이민자들의 행렬을 말한다. 이들이 멕시코 남부에서 북상 중이라는 소식을 접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미국의 이민법을 비웃고 있다"며 이들을 막을 것을 압박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재협상이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에 이민 규제 조건을 추가하겠다는 엄포도 냈다.

## ■ 남쪽 국경에는 방위군 배치 포고령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자 등 불법이민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 남쪽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약 거래상이나 갱단 등 범죄자들이 점령지역을 넘는 것을 막으려면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난민신청을 한 이들 중 상당수가 심사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들어온 이후 법정엔 나타나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으며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이민법을 뜯어고쳐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남쪽 국경에 대한 집착은 미국 내 이민자의 상당수가 미국의 남쪽, 즉 중남미 출신이라는 점과 무관치 않다. 2015년 기준 미국 내 이민자 4,210만 명 중 4분의 1의 넘는 1,210만 명이 멕시코 출신이었다. 멕시코를 제외한 중남미 국가 출신도 1,029만 명에 달했다. 이민자 중 절반가량이 미국의 남쪽 국가 출신들인 셈이다. 이민자를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 남쪽 국경은 꼭 틀어막아야 할 입구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국경에 대한 '내로남불' 식 태도는 인접국에게 각기 다른 애환을 안긴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그 피해는 이들 나라를 떠돌아야 할 이민자들의 몫이다. 캐나다가 난민 친화적이라는 말은 절차에 관한 것이다. 난민 인정률이 높다는 뜻이 아니다. '캐러밴'에 인도주의 단기 비자를 내주는 멕시코도 자국의 난민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심사 결과에 항소할 경우 장기간 투옥하기도 한다.

이민자들이 정착할 만한 곳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상당수는 이들 나라 어딘가에서 추방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고국에 남지도 않을 것이다. 엘살바도르 출신 20대 산모는 "MS-13 갱단의 폭력을 피해 달아났다"며 "(망명을 위한) 싸움은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CA Lns Lic # 0B18537

■ 은퇴 준비를 위한 재정계획 안내

최근에 은퇴하셨습니까?  
곧 은퇴하실 계획입니까?

10%  
즉석보너스

"과거의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객중에는 손해 본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철통같은 원금보장 덕분이지요"

401(K) Rollover  
은행CD Account 이전

### 철통같은 보장성 연금플랜

증권시장의 위험성을 원천봉쇄하여 원금이 보장되며 Social Security 연금처럼 평생 마르지 않는 인컴이 보장되는 플랜

- Transfer: 은행CD, IRA Accounts
- Rollover: 401K, TSP 등 각종 직장 은퇴플랜

\* 직장을 옮긴 분들은 그 전 직장서 가지고 있던 Account를 하루 속히 옮겨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신천 보험·재정



714.323.7420  
Email: choinsurance@yahoo.com

8308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